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分期計量模型」: 應答

金 仲 秀

*

本 應答은 向後 우리나라 勞動市場에 대한 巨視分析에서 고려되어야 할 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 筆者의 拙稿(1986)¹⁾에 대한 金有培 教授의 論評에서²⁾ 지적된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勞動市場에 대한 巨視分析의 既存 研究事例를 고찰하여 볼 때 勞動需要 및 供給의 決定要因에 대한 분석이 간과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³⁾. 예를 들어 우리 경제의 巨視計量模型에서 勞動市場均衡에 관한 構造方程

式은 失業率·賃金·勞動供給函數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각 函數式의 定式化가 극히 단순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실정인 것이다⁴⁾. 이러한 模型들에 暗黙의으로 내재되어 있는 가정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 노동의 超過供給이 상존하므로, 失業率·賃金 등의 수준이 노동 수요에 의하여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就學率·出產率 등의 변화와 더불어 「베이비·붐」世대의 노동시장 과잉진입에 따른 就業人口의 年齡構造變化 등은 노동공급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또한 산업구조의 급속한 고도화추세는 需要行態의 決定要因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人口의 增加, 農村人口의 지속적 都市流入現象으로 勞動供給側面에서의 사회적 압력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시각에서 볼 때, 勞動需給에 대한 巨視分析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巨視模型分析에서의 어려운 점은 模型의 理論의 背景을 이루고 있는 微視行態를 巨視分析에서 여하히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이다.

筆者: 本院 研究委員

- 1) 金仲秀,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分期計量模型」, 『韓國開發研究』, 1986. 겨울호. pp. 87~109.
- 2) 金有培,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分期計量模型」: 論評, 『韓國開發研究』 當號.
- 3) 本 分析에서는 勞動供給과 經濟活動參加의 用語가 混用되고 있다.
- 4) 朴元巖, 「韓國經濟의 分期計量模型」, 『韓國開發研究』 1986. 여름호, pp. 25~66; 南相祐, 「韓國經濟의 半期시뮬레이션模型」, 『韓國開發研究』 1981. 봄호, pp. 131~152; 韓成信, 『韓國經濟短期豫測模型』, 研究叢書 2, 韓國經濟研究院, 1981.

金教授의 論評도 기본적으로 筆者의 模型에 內在되어 있는 微視의 意味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時系列 資料에 의한 巨視分析和 橫斷面資料를 사용한 微視實證分析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설정되었으므로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나 대체적 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金教授의 論評 및 提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應答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産業別 勞動需要와 性別·年齡別 勞動供給推定方程式간의 連繫性 문제이다. 筆者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勞動需給간의 不均衡, 즉 失業은 勞動供給 및 需要의 主要 決定要因인 賃金率과의 關係式에 의하여 다음 期의 노동수급이 조정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賃金과 失業率간에 時間差가 있다는 지적은 본 연구에서 賃金函數에 失業率의 時差構造가 고려되었으며, 노동공급 및 수요함수에 각기 時差從屬變數가 포함되어 賃金率등의 各 獨立變數의 無限時差效果가 勘案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雇用主 및 政府의 賃金統制效果를 제안한 것은 첫째로 勞動需要函數推定, 다시 말하면 生産要素價格變化에 대응한 雇傭行態分析과는 무관한 과제이며, 둘째로 분석기간의 특정시점에서 제도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한 賃金水準決定의 微視分析이 아닌 時系列分析에서는 위와 같은 제도나 관행의 효과를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둘째, 雇傭吸收力の 검증을 高成長期 및 低成長期로, 또는 勞動 및 資本集約産業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은 構造變化(structural change) 또는 可變係數(variable coefficient)의 推定問題로 표현할 수 있다. 微

視分析에서는 高成長 및 低成長 또는 勞動集約度에 따라 産業을 구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나 時系列分析에서 우리 경제와 같이 경기의 循環變動이나 또는 産業構造가 심하게 변하는 여건하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恣意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認識下에 不變係數 β 를 時間의 函數, 즉 $\beta(t)$ 로 추정하였음을 다시 밝혀 둔다. 한편 本 研究에서는 失業率에 연결되는 勞動需給分析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製造業部門을 더욱 세분한 勞動需要分析은 자료의 결여로 가능하지 않으며, 勞動供給時間을 제외하였다는 지적은 본 연구의 특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失望勞動者 假說檢證을 위하여 男性 25~49歲의 失業率보다는 全體勞動者의 失業率 또는 副次的 勞動者의 失業率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제안이다. 이론적으로, 이는 경기변동의 지표로 무엇이 사용되어야 하는가의 과제이다. 筆者가 논문에서 지적하였듯이 失業率의 變動은 短期的 景氣變動(short-run cyclical variation) 要因과 中長期的 趨勢變動(secular trend fluctuation) 要因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世대의 勞動市場 過剩進入,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 提高 등으로 後者의 영향이 근년에 집중되고 있는 여건과 男性 主勤勞階層의 경우 景氣變動要因 이외의 經濟構造的 要因으로는 노동시장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失望勞動者 假說檢證을 위한 景氣變動指標로 어떤 失業率이 사용되어야 하는가는 자명할 것이다.

네째, 勞動供給函數가 性別·年齡別로 거의 동일하게 定式化되었다는 지적은 실제의 논문

내용에 적절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즉 主勤勞階層과 副次的 勤勞階層은 기본적으로 新古典學派理論과 相對所得理論등 서로 상치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모형으로 각기 설정되었으며 더우기 人口年齡構造變數 등 同一變數를 포함하였을 경우도 이론적으로 서로 다른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도되었다. 한편 都市·農村간의 區別 必要性등은 적절한 제안이나 性別·年齡別 資料의 경우 위와 같이 더욱 세분된 구분은 통계자료의 信賴度上 이용 가능하지 않은

실정이다.

結論的으로, 冒頭에서 제시하였듯이 巨視實證研究의 適合性은 그 分析內容과 微視理論과의 일치성에 있다 하겠다. 金教授의 論評은 이러한 의미에서 勞動市場模型設定에서 微視와 巨視分析을 논리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분석자들이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지적한 것으로서, 향후 統計資料의 改善과 더불어 模型을 補完·發展시키는 데 좋은 基礎資料로 사용될 것이다. ■